

2019회계연도 제4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0년 2월 4일(화요일) 14:00 ~ 16:00

○ 장소 : 대학본부 8층 회의실

○ 회순

1. 개회 2. 위원장 개회 선언 3. 안건상정 4. 폐회

○ 참석자 : 양규혁, 최백렬, 유희철, 박성수, 홍철운, 이인재, 김중기, 김용우, 이문선, 이원석 위원

○ 불참자 : 윤영상, 조재영, 이동현, 고관호, 이홍래 위원

○ 상정안건

- 중기재정운용계획안

- 2020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

-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간 사 : 바쁘신 가운데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김강욱)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4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안건은 ① 「중기재정운용계획안」, ② 「2020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 ③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문선 이원석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재정위원회입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양규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수선한데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씀은 짧막하게 드리고, 재정위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히 신임위원님들 잠깐 인사말씀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위 원 : 인사말씀

(박성수)

위 원 : 인사말씀

(김중기)

위 원 : 인사말씀

(이원석)

위원장 : 성원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15명 중 총 10명이 참석 (양규혁) 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노 기획예산부처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부처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중기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함.

(이상노)

위원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규혁) 본 안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대학노조 사무국장 이문선입니다. 대학노조 전체 대학회계직이 281명 정도 (이문선) 되는데 현재 학생지도비를 받고 있는 분이 70명이 채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할 때인 3, 4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검토나 사업계획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분도 이런 식의 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듣고 교육부에 제출해주시거나 검토가 없었다는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 설명을 하는 200페이지가 넘는 책자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넘겨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안 설명이 끝나고 승인을 받는게 과연 이 회의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대학회계예산안이나 추정예산안은 몇 주 전부터 재무과에서 사전설명을 하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기획과에서 만든 중기재정운용계획 이 책자는 지금 들어와서 처음 봅니다. 단 몇 분 사이에 보고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앞으로는 이 내용에 대해 사전에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죠.

(양규혁) 참고로 중기재정운용계획안은 재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효력이 있는 것이죠.

위 원 : 사무국에서 ~~하는~~ '주요사업 항목에 2,234억 정도가 되는데, 조교연구성과금, 입시 (최백렬) 전형관리, 실험실습비, 연구기관지원비'이제 사무국에서 핸들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연구기관지원비는 기획처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시전형 같은 경우 입학본부, 조교연구성과금은 교무처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34페이지 사무국 항목 주요사업에서 조교연구성과금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입시전형은 19년에 1억6천만원정도가 있었고 그 후에는 2020년부터는 없네요. 입시로 입학본부로 넘어간 건가요. 입시전형관리비가 1억6천만 원이 19년에 있었고 20년부터는 없는데, 연구기관지원비는 항목만 있고 없고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위원장 :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중기재정운용계

(양규혁) 획은 기획처 예산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학교 대학회계 전체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부처장님은 주로 사무국 예산은 떼어놓고 기획처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하신거구요.

기획예산부처장 : 사무국 예산은 사무국에서 편성해서 중기계획을 저희에게 보내주면 저희가 다른 (이상노) 거하고 합쳐서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 범상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세우고 그 아래에서 몇 년의 예산을 세워야 하 (양규혁) 는 거 같은데...

재무과장 :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교연구성과금은 국비입니다. 사무국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무과로 재 (박성일) 배정을 해주고, 실험실습비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총괄로 잡아놓고 각 단과대학, 부서단위로 예산이 내려갑니다. 이 예산이 각 기관별로 들어가야 하는데 중기재정을 세울 때는 총규모는 나오지만 각 기관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 사무국에 총괄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다 내려갑니다.

위 원 : 예를 들어 입시전형관리비는 2019년도 1억6천이 있었는데 20년도에 없어졌다는
(최백렬) 것은 입학본부로 갔습니까?

재무과장 :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예산편성이 돼있으면 재배정해서 내려주는 형태이고 저희
(박성일) 쪽에서 집행하는 것은 사업비는 없습니다. 다 예산편성은 하되, 다 내려지고 나중에
정산, 결산을 할 때는 받아들이고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주로 사무국에서 집행하
는 것은 교직원 인건비하고 시설확충비를 합하면 거의 2천억 정도 되는 그 돈이 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원 : 보조금은 뭘까요. 제일 마지막 항목이요.

(최백렬)

재무과장 : 보조금도 똑같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오는 보조금들로 이것 자체도 여기에 잡아놓
(박성일) 은 것은 각 기관에 잡을 수 없고, 특히 국제협력본부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오는 보조금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을 이쪽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
수준정도로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수입대체경비도 사무국 것이 아니죠. 이것 자체도 다 기관으로 내려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 중기재정운용계획을 기획처 소관으로 하는 모양인데, 기본적으로 조직이 성장하고
(양규혁) 발전하려면 인센티브 제도가 잘돼있어야 하는데, 그런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는,
자원배분방향을 보면 BSC기반의 성과목표를 제시했지만 어떻게 쓴다는 얘기는
없는데, 기획처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과대학 신입학장님이 외국인 학생이 상과대학에 약 40억 정도 벌
어주는거 같은데 딱 1프로가 상과대학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
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벌기는 벌 수 있는 사람
이 다 벌어서 나눠 쓸 때는 똑같이 나눠서 쓴다는 개념이나, 아니면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더 버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느냐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
들어서 쓸 수 있는거 아닌가요. 기획처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보는 게 필요할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 그것은 이미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부서운영비 배분할 때 외국인학생 등록금 총액에
(박성일) 대해 배분해서 상과대학이 50프로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 50프로요? 1프로 가져간다고 하던데요.

(양규혁)

재무과장 :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등록금을 환원한다는 개념이라 배분액 총액이 있습니다.
(박성일) 예를 들어 1억이면 5천만 원 정도를 상과대학이 가져가도록 돼있고, 또 국제협력
본부가 6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평가를 통해 재배정해서 줍니다.
BSC부분은 기획처 평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BSC평가를 통해 학과단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원 : 그러면 수입항목에서 외국인학생 등록금수입을 별도로 항목을 잡지 않습니까
(최백렬)

재무과장 : 그건 등록금으로 같이 잡습니다. 예컨대 정원이 2만 명이면 외국인학생은 2만 명
(박성일) 에 포함이 되지 않고 외국인 학생이 천명이라고 하면 학생이 들어온 만큼 많이
들어와야 재원이 마련이 됩니다.

위 원 :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입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외국인 등록
(최백렬) 금 수입을 별도로 잡으면 그 노력한 기관을 할 텐데 합쳐놓는거 아닌지요

재무과장 : 저희가 배분을 할 때 표시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회의 끝날 때 그 말씀을
(박성일) 드렸거든요. 각 단과대학에 이것 때문에 예산이 더 배정되었다는 보고를 학장님께
꼭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각 단과대학에 똑같은 규모의 대학끼리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외국인 등록금이 하나도 없는 곳은 그 돈만큼 없기 때
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 원 : 연간 외국인 등록금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최백렬)

재무과장 : 저희가 970명에서 1,000명 수준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장학금을 주니깐 실질적
(박성일) 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25억에 30억 정도 가까이 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 규모를 키우고 성장을 하려면 그 부분에 이로울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양규혁)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상대신임학장님에게 상과대학으로 수입만큼 예
산이 안오는거 같으면서 이것은 제고를 해보야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요. 한번
학장님에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성일)

위원장 : 재정운용계획을 운용할 때 과연 어떻게 운용할까하는 그런 방침 등이 재정
(양규혁) 운용계획에 나와야 하는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 원 : 정보전산원이 최근에 급변하는 시스템 차원에서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

(최백렬)

위 원 : 이 부분 관련해서 공식적인 정보전산원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말씀
(김용우) 안 드렸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으로 보시면 이번에
28%정도를 축소했고, 계속 축소되는 형태입니다. 앞으로 정보화 추세이고, 전산
장비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이런 부분에 다른 대응책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쪽 추경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런 것을 다루는 다른 하위 위원회가 있지 않겠어요?

(양규혁)

위 원 : 저희가 자체적으로 스마트캠퍼스를 추진하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예산이 편
(김용우) 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요성은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
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이 준비되면 추경이라든
지 아마 별도로 요청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일조를 하긴 했는데요. 전산원이 학교발전에 특히나 입시라든지, 수
강신청 이런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갈수록
인터넷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수요자들은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는 상황에서 실질
적으로는 장비의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깐 여러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위원장 : 제가 말씀 드리자면 지금은 그런 의견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니깐
(양규혁) 예산 편성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위 원 : 사실은 스마트캠퍼스정보화추진단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사실 크게 어필했는데
(김용우) 의결권이 크게 없는거 같아요.

위 원 : 거기 재정지원사업으로 하나요?
(최백렬)

위 원 : 지금까지 육성사업으로 해왔는데요. 공용소프트도 육성사업으로 쓰면 안 된다고 규정에 내
(김용우) 정되어서 그것도 지금 많이 꺾인 상태고, 여러모로 결정할 수 있는 의결기구가 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원 : 기획처의 재정기획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김중기)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 여기가 최종의결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혁)

위 원 : 최종이군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이 금년도 예산과 결부돼서 진행되고 있는
(김중기)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중기재정과 관련해서 좀 더 큰 중장기적인 대
학발전과 연계해서 논의를 진행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학발전이나 중장기발전계획과 연동해서 재정계획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부
족하다고 하면 어디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든지, 산단회계, 발전회계
와 연계해서 계획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방향성과는 다르게 현실여건, 돈의
여건이 이렇게 때문에 계속 어긋나는 방향으로 축소해 나가는 이런 방향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입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대학을 발전을 시킬까 하는 재정운용계획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실여건만 감안
해서 점차 연도가 가면 갈수록 약간의 금액들은 올라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만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
면 학생지도비 문제도 조직이 발전하려면 조직의 구성원들이 갈등이나 분열의 조
짐이 없이 갈 때 발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재정운용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 축소 내지는 약간의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재정운용계획을
만들어서 심의의결하려는거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 위원님 의견을 반영시키기가 조금 포괄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양규혁)

위 원 : 반영시킨다기보다는 그러한 쪽으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자꾸 힘을 실어서 틀을
(김중기)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양규혁)

위 원 : 방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재정위원회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계획은 재정계획이죠, 총장님이나 기획처, 재무과가 어떤 운영철학을 가지고 수립을 한 계획인데요. 우리의 임무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고요. 그런 철학이 뭔지에 대해 알고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심의를 해야 할 텐데 우리의 현 상황에서는 심의하는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대부분 하는 일이 그냥 의결만 해주는 겁니다. 재정위원회의 본래의 기능, 설립의 기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좀 더 오픈하고, 클리어하게 많은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용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종의 심의의결은 해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보고서 무엇을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심의할지 난 관에 봉착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매번 참석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재정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철학을 검증하고 이런 방향으로 보고가 되고 심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 원 : 말씀하신 것은 27페이지부터 설명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이 대학의 비전 (홍철운) 2030이거든요. 현재 대학의 비전2030이 발표된 지가 꽤 됐어요. 그것을 보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넣은 이유가 그 방향에 맞게 투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이렇게 짰습니다하는 내용이긴 한데, 저는 거기에 맞춰서 5년 동안의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이거 때문에 이렇게 5년 동안의 예산 계획을 세웠습니다라는 설명이 필요한거 같고 재정위원회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닌거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 원 : 저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상황은 모르지만, 중기재정계획에서 이런 부분이 우리 학교 (박성수) 의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발제 하실 때 자체수입 대학회계에서 총 쓸 수 있는 것이 300억 200억 이렇게 말씀하시고 30억 당장 뛰하는데도 어렵다 하시는데 저는 등록금이 11년째 동결되어있기 때문에 세입은 국고가 늘어나는데 국고 늘어나는 것은 대개 사업비이므로 어느 정도 용처들이 많이 정해져있고, 결국 등록금수입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등록금수입에서 지출되는 많은 부분이 경비성 경비입니다. 대표적으로 건물관리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건물이 하나 늘어나면 전기세가 늘어나고 거기에 관리인원이 들어가야 하고 냉난방기 들어가고 그렇듯이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에서 분석적으로 향후 5년간의 인건비 추계, 향후 5년간의 관리비 추계, 경직성경비 추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구성원들이 볼 때 정말로 돈이 쓸게 없구나 설득이 되고 그러면은 경직성경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논의,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수입원을 찾는 방법, 지출을 줄이는 방법, 여러 가지 재무구조를 재구조하는 논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중기계획에서는 재정상황이 분석적으로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보여지고, 20쪽에 세출추계가 나와있는데 이걸 너무 러프하거든요. 이걸 전체 국고까지 합쳐서 나오는데, 우리 고유의 지출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 재정이 정말 어렵구나 쉽구나 그것을 알 수 있을거 같아서 저는 감히 건의를 드리면, 다음번 중기계획에는 그게 먼저 짜여지고 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을 짜든 사무국에서 짜든 그런 데이터를 놓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증지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중기재정 항목에 법정항목인지 어떤 항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분석적인 데이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 제가 알기로는 기획처에, 여기 회의 올라오기 전에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논 (양규혁) 의를 충분히 하고 재무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위원회가 있겠죠?

재무과장 : 저희는 예산 편성 전에는 위원회가 재정위원회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주요사업 (박성일) 비에 대해서만 주요사업심의를 거치면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 그러면 예산편성을 전혀 심의를 안 거치나요? (양규혁)

재무과장 : 아니요. 주요사업비, 경직성경비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공공요금 부서운영비 실험 (박성일) 실습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개념으로 가고, 나머지 사업비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중기를 짜려고 하면 재정지원사업이 포함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 자체를 통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말한 200억이 포함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육성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녹아들어서 보이는데 이걸 이대로 가고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비가 재정지원사업 2백억이 들어오면 그건 예산만 편성하지 중기쪽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교육부에서 금액을 대학에 통지를 해주고 중기에 반영하라고 해주어야하는데 아직 교육부에서 그런 형태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원 :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물론 이것들이 어떤 운영철학을 가지고 수립한 것이 (이인재) 맞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읽다보면 이것들이 사실은 모든 계획서에서 다들 있는 내용들이라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예산이 어떤 예산이고 어떤 예산이 얼마큼 증가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거 같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재무과장님과 같이 설명을 들었는데요. 경직성 경비가 너무 많고 사실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습니다. 그나마 몇 백억이라도 운용을 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식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짰다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교육부에 좀 더 독립적인 예산편성을 허용하도록 설득하거나 압력을 주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재무과장 : 그건 저도 공감하구요.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조금씩 바뀌어는 가고 있습니 (박성일) 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중기 세율 당시에 그 금액을 미리라도 알려주면 조금 더 이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녹아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구도가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계속 제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위 원 : 이런 논의가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사무국장님 말씀하는거에 공 (홍철운) 감하는게 뭐냐면 어려울 때는 사실 벌기는 더 어려워요. 새는거 막는 거죠.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가 고민이 되는 거고, 그 틈새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학본부의 자량은 아니지만 학생들 모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편입학 학생들이 많이 못 들어오니 편입학 학생들을 많이 모집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100명이라도 ^{50명이라도} 50명이면 1년 4백만 원이면 2억이라도 더 들어오거든요. 근데 천만 원 이천만원 없어서 째짤매 때가 있잖아요. 사무국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신게 어딘가를 찾아보면 사실 틈새가 참 많고 그 틈새를 잘 찾아서 최대한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은 벌어야는 거고 그다음에 새는 것을 막자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게 있지만 경제가 어렵고 조직이 어렵고 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100퍼센트 만족은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도 금방 말씀하신 논의를 그쪽으로 이어가고 싶 (김중기) 은데, 문제는 중기재정운용계획마저도 교육부가 통제 내지는 제재를 가하거나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 제재는 없습니다.

(박성일)

위 원 : 이것도 제출을 해서 교육부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김중기)

재무과장 :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박성일)

위 원 : 그렇지 않다면 제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하는 방향을 여기에다 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비전2030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마저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산단회계나 발전회계를 활용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재정 운용계획에서 나타내주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심의하는거고 교육부가 승인해주는게 아니라고 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위 원 : 제가 예전에 비전2030에 같이 만드는데 일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눈에는 (홍철운) 보이거든요.

위 원 : 물론 기본적인 것은 다 그렇게 짜여 있죠. 근데 혁신을 해서 새롭게 가고자 (김중기) 한다고 하면 그런 신규 사업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 원 : 좀 더 눈에 띄게 하면 좋을 텐데 제 눈에는 예를 들어 예산의 5년 동안 변 (홍철운) 화추세를 보면 앞으로 이것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부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말씀 하신 거라 보입니다.

위원장 : 이런 논의는 안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논의가 대부분인거 같구요.

위 원 : 그 차원에서 한 말씀, 홍철호 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최백렬) 위해서 중기적인 차원에서 수입과 지출 문제를 봐야 할 텐데 수입이라면 등록금수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별개지만 산단회계가 있고, 발전 지원재단회계가 있을 텐데, 등록금 수입은 한계가 있는데 아까 편입생이 늘어나면 수입은 늘릴 수 있고 또 하나가 외국인유학생이 늘어나면 또 다른 우리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출은 효율성 있는 지출이 되어야 할 텐데 인풋 대비 아웃풋이 조금 괜찮은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예전에 해왔던 루틴한 사업을 그대로 운용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자를 건 자르고 봐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자르지 못하는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인재등용관 고시원에 인풋대비 아웃풋이 나오나? 지금 인재등용관에 있는게 사대 임용고시반 같은게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하거든요. 중기적인 재정운용에서 보면 그런 것을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논의할게 아니라 예산편성과정에서 당연히 논의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다 검토가 됐어야 맞죠. 여기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이제 기획처와 재무과에서 그런 과정을 잘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 본래 그걸 하는 것이, 그 말씀하신 것이 주요사업비쪽이거든요. 사업비를 구조 조
(박성일) 정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을 봐서 축소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 하나를 깎
아내면 왜 우리 것을 깎나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해
서 몇 년 해서 성과가 안 좋은 것은 자동으로 삭감하는 식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조정위원회 회의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평가를 해서 깎자고 하면 가뜩이나 예산도 적은데 그것마저 깎으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위 원 : 5년 동안이긴 하지만 중간에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홍철운)

재무과장 : 예 변동이 가능합니다. 매년마다 별도로 세우기 때문에 변동이 가능합니
(박성일) 다.

위원장 :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안건에 더 질의할 의원님 있으십니까?
(양규혁)

위 원 :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북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장으로 이 자리에
(이원석) 참석했지만, 제가 등록금심의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겪으면서 재원을 어
떻게 얼마나 세입을 할지를 정하고 어떻게 쓸지를 의결하기 이전에 어떻
게 예산을 쓰겠다 심의하거나 결정하겠다는 의사회가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학생자치기구, 우리대학 전체 재원의 재
원수입의 대표인 제가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저희 자체 커뮤니케이션 참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협의체가 재정기획위원회일지 공식적인 명칭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용하겠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협의체에 당연히 학생자치기구도 들
어가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을 실질적
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어떻게 사용한다는 내용들을 미리 확
인하고 온다면 조금 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 기획예산위원회에는 학생대표는 안 들어있나요?

(양규혁)

기획예산부처장 : 있습니다.

(이상노)

위원장 : 그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위원회는 최고의결기구이기

(양규혁) 때문에 아래부터 다른 소위원회부터 검토된 사항이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까?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들 : 네

위원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성6표, 반대1표, 기권3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 중 「2020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20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함.

(박성일)

위원장 : 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7페이지에 나오는 수업료 감소가 2억4천4백만 원이잖아요. 신입생 기준인지요?

재무과장 : 저희가 항상 등록금 추계를 할 때는 전년도 10월 1일 등록학생수를 기준으로 99%를 반영합니다. 이것이 편입생 수가 늘어나서 이 돈이 늘어나면 나중에 추경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위 원 : 전형료도 보면 4천6백정도 줄었잖아요, 학생 수도 줄고 경쟁률도 줄고 이런 영향이 있는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 그래서 이것도 어떨 때는 그때 봐야겠지만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위 원 : 통계적으로 3, 4년 동안 보니 계속해서 줄고 있거든요. 5년 후에는 예상컨대 경쟁률이 1대1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년 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20만 명이 줄거든요.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무과장 : 맞습니다.

(박성일)

위 원 :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8페이지에 교육활동운영지원이 있잖아요. 53억5천에서 54억, 입학지원 1억8천5백에서 2억3천5백으로 증가를 시켰는데 이게 어디에도 증액사유가 보이지 않아서 증액을 하게 된 배경 등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 주요사업비 심의에서 증액이 됐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진로취업캠프가 올해부터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진로취업캠프를 운영하는 것이 있고, 입시모집을 할 때 해외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홍보하는게 없었는데 앞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려면 재외에 있는 한국학교를 방문해서 그 학생들을 우리학교에 유치하기 위한 비용과 우수학생 유치차원 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위 원 :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전임교원인건비는 반영이 안됐나요.

(최백렬)

재무과장 : 그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공문이 예산편성 후에 내려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
(박성일) 경때 마련하려고 하는데 교육부에 아직 금액이 얼마라고 통지가 안와서, 2.8% 1억6
천만원정도만 증액을 해놨는데 그 공문이 예산안 제출되고 나서 하라고 했기 때문
에 그것은 추경때 처리해야할거 같습니다.

위 원 : 재정지원사업중에서 반영이 안 된게 국립대육성사업하고 또 무엇이 있나요?

(최백렬)

재무과장 : 국립대육성사업은 하나도 반영이 안됐고 혁신지원사업은 전년의 80% 수준
(박성일) 입니다. 정부재정지원사업이 150억 정도 반영이 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됐고, 혁신지원사업은 육성사업보다
는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총장님 취지가 대학자체에
재정지원사업비의 40%정도를 단과대에 배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습니다.

위 원 : HRC센터가 어떤거 인가요?

(김중기)

재무과장 : HRC센터는 기숙형학교와 똑같은거인데요. RC가 HRC로 명칭이 바뀌었습니
(박성일) 다.

위 원 : 예산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를테면 진로취
(김중기) 업캠프나 직접 해외 나가서 특히, 국제협력부에서 하는 일이겠죠. 총장님 모
시고 방문해서 MOU를 맺게 되면, 대학원생이나 유치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오히려 각 대학 교수님들이 각 분야에서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서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거
지, MOU를 통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위 원 : MOU를 맺는게 아니고요. 고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입니다.

(홍철운)

진로캠프라는 것은 재외국민도 고등학교도 한국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을 유치해 오자는 취지에서 재외국민의 입시거든요.
이런 것들의 취지가 한국 내에 학생 인구가 줄고 있으니 대외적으로 학생
유치에 힘써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거점국립대이기 때문
에 공공성 차원에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진로취업캠프사업을 통해 진로에
맞게 학생을 유치하고 경험을 시키는 활동들을, 학생들이 우리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 적성을 찾게 하는 교육활동을 하는 겁니다.

위 원 : 국제에서 AUEA도 같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중기)

위 원 : HRC는 기존의 명칭을 약간 바꿔서 우수학생들을 잘 관리하자는 차원, 4년 (홍철운) 동안 우수한 학생들을 잘 관리해서 취업률까지 연결해서 높이겠다는 취지가 있는 거고요. AUEA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동남아시아의 학생과 네트워크형성을 개척하고자 하는 총장님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하는데 그 시작이 MOU가 될 수도 있고습니다.

위 원 : 그런 부분에서 교수들하고 연결된 사업들이 있어야, 요즘은 교수님들도 대 (김중기) 학원생 안 받으려는 상황이 있거든요.

위 원 : 대학원생도 대학원생인데 이것은 학부학생들을 주로 하고, 교환학생을 6개월 또는 (홍철운) 1년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거기에서 또 우리 쪽으로 와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AUEA입니다.

위 원 : 그럼 기존에 있던 비슷한 사업들이 개편해서 편성이 됐는데, 기존의 사 (김중기) 업들을 종료시킬 때는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나 문제점이 검토되고 해체가 된 겁니까. 저는 오랫동안 지자체에서 근무를 했는데 외부에서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어떤 내용을 조금씩 바꾸어서 가는 것에 많은 지적들을 해주시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특히 단임제를 관철시키겠다는 총장님이시니깐, 단임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단들을 오히려 지켜내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4년마다 바뀔 수가 있어요.

위 원 : 제가 아는 ^이부분을, AUEA^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도 ^{교환학생}이라든가 (홍철운) 교류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이지 못해서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인 보완을 해서 AUEA로 가려는 겁니다.

위 원 : 기존에 사업들도 학생들이 인식하기에 오프캠퍼스도 마찬가지로, 개념들 (김중기) 이 정립돼서 그런 사업이 있구나 홍보가 되어서 정착을 하려는데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서 또 헛갈리고 그런 식으로 사업들을 바꿔서 가야하는지. 기존에 사업들이 있으면 개선을 하면서 꾸준히 정착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명칭을 바꿨다고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한 번씩 바뀔 거 같아요.

위 원 : RC와 HRC를 말씀드리면 기본은 같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HRC를 하려 (홍철운) 고 하는데 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병춘교수님이 학생들 의견수렴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의 RC를 없애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혁)

위 원 : 학생처 유희철입니다. 2020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유희철) 다. 학생처를 맡고 있어서 학생활동과 후생복지 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산안이 2019년에 운영했던 것보다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삭감되면 학교평가에 들어가는 해외봉사 운영 숫자라든지, 학생 복지사업에서도 학생회 기타 학교행사 관련이나 학군단 관련 행사를 후원하는데 문제가 생길 거 같고요. 특히 학교평가에 들어가고 매년 국정감사에서 장애학생지원사업에 전북대학교가 어느 정도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냐 지원이 계속 늘어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장애학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책자 비용을 감액시킨 것은 불필요한 책자 발간 숫자를 줄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감축액도 좀 많고 더 심각한 것은 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부분인데 장애학생들이 시력이 약한 학생들은 확대경을 구입한다든지 글자를 인식해서 글을 읽어주는 기기들은 구입비가 2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8백만 원 배정돼서 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계 하나당 몇 백이 아니고 천단위가 되거든요. 이번에도 마지막 남은 예산으로 장애학생 공학기기들을 이용했는데 물론 대학회계에서는 예산상 감액을 했더라도 혁신지원사업이나 아니면 공용기기는 실험기자재를 활용해서 장애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게끔 안을 제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회장도 있으니깐 학생후원액수가 굉장히 감축이 됐기 때문에 실액수로 얘기하면 천만 원 요청했던 것보다 이백만 원 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생처 자체에서 운영하기 어려우면 총장님실이나 다른 예비비를 편성해주셔서 소통은 이루어져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봉사단 숫자를 줄이게 되면 대학평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혁신지원사업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 육성사업이나 혁신지원사업이 어느 선까지 포괄할 수 있는지 관련 내용이 (박성일) 내려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학생 부분이 실험실습기자재에 해당되게 된다면 2020년 실험실습기자재 낙찰차액으로 그 정도는 충분히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평가 받는데 페널티를 받는 부분은 없도록 할거구요. 저도 그 부분은 혁신지원사업이나 육성사업 관련 내용이 내려왔을 때 해외봉사로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식이 덜한데 공용기기라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유희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장애학생은 특성상 1명의 기기로 제공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 그것은 제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성일)

위 원 : 원어민장사지원이 순증으로 돼있어요

(홍철운)

재무과장 : 사업변경입니다. 밑에 보시면 교책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명칭이 교책사업
(박성일) 이라고 돼있으니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원어민 객원교수 인
건비사업입니다. 있던 것을 명칭을 좀 더 편하게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
습니다.

위원장 : 또 질문 있으십니까

(양규혁)

위 원 : 학생처장님이 언급해주신 학생복지예산 감액에 대한 답변을 못 들은거 같아서 그
(이원석)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것이 기획재정위원회 심의할 때 문제가 뭐냐면 작
(박성일) 년에는 국립대육성사업을 59억 정도를 본예산에 담을 때 일부를 넣어줬
어요. 올해는 그 자체를 전체 반영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컨설팅
받을 때 이런 것이 과도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을 하나
도 담지 않고 그 부분이 내려왔을 때 그 사업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형태로 가야하거든요. 작년에는 56억 정도가 부족해도 메꿔줬었
는데 올해는 그런게 없고 그것을 한다면 4월 달 육성사업비 내려오면 전
체적으로 되니까 그때 말씀하신 부분은 채길 수 있도록, 작년 같으면 그
것이 들어와 있었겠죠.

위 원 : 학생회장님이 추가로 말씀해주셔서 제가 오해가 없게, 학생회에서 요구
(유희철) 한 예산은 삭감됐다가 보다는 거의 전액이 반영이 됐고, (추가적으로 다
른 운영비라든지 부족한 것이 있어 말씀드렸고 장애인 공학기기는 2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80만원이 배정이 돼서 이걸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추가
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학생회 예산은 삭감되진 않았고 여
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
런 것들이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마련해달라
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성일)

위 원 : 큰 틀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안에 항목들을 보면 크게 늘어날
(홍철운) 항목들이 없죠.

재무과장 : 지금 늘어날 항목들이 없는데요. 그나마 저희가 늘린 것이 사용료 수입 같
(박성일) 은 경우도 세원 발굴 말씀하셔서 느티나무카페 이런 곳의 사용료 수입을 1,
2억 늘리는게 엄청 힘이 듭니다.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 4억5천만원정도 계
속 더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도 정기예금을
예치시켜서 늘려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 저도 하나 좀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대학회
(양규혁) 계직원이 2019년 320명에서 2020년 351명으로 나와 있고, 예산안 개요도 16
페이지 보면 대학회계직원 인건비가 11억 정도가 증액되었고 그 이유가 22
명의 순찰 및 냉난방 직원 직영전환에 따른 증가로 돼있는데 제가 묻고 싶
은 것은 대학회계직원이 정년에 따른 퇴직 등으로 인원이 감소하면 그 자리
를 메꾸는 방향으로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 정원 같은 경우에는 신규채용을 해야 하는 거고요. 지금 22명의 전환직종
(박성일) 같은 경우는 무인경비 용역에서 단순 순찰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예전에는
용역비로 아웃소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고용으로 가이드라인이 내
려왔기 때문에 이분들을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
쪽에서 하셨던 분들도 직고용으로 바뀌었고, 직고용 안 된 것이 한 직종 있
습니다. 소방전기 쪽인데, 거기는 지금 학교와 민사소송관계입니다. 1인당
인건비를 6백만 원 올려달라고 하니깐 저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상
태에서 민사소송상태이고 그 직종만 전환이 안됐고 나머지는 전체 다 전환
이 됐습니다.

위원장 :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학교일에 관여할 때 그때에는 기성회직이었죠. 기존
(양규혁) 에 많이 채용돼있던 기성회직이 퇴직 등으로 나가면 그 당시 총장님 정책은
예산절약을 위해서 가급적 채용을 앓고 재배치하며 운영을 해서 예산을 꽤
절약했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현재 시스템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 정원
제로 돼있어서 꼭 다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퇴직인원에 대해 재배치를 통
해 좀 줄일 수 있는 건지 지금 우리 형편에서 예산절약 할 수 있는 길은 그
길이 제일 간단할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 참고로 작년에 그랬던 사례가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인원이 7명이 줄었는
(박성일) 데 퇴사는 못시키고 다른 분이 퇴직하면 이 분들을 활용해서 그만큼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증가율도 저희가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 원 : 대학회계직 정원이 규정화되어 있나요

(김중기)

재무과장 : 대학회계총정원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처음에 2015년에
(박성일) 할 때 했고 그 후에 한번 작년에 청소직영전환할 때 정원 늘렸고요

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양규혁)

위 원 : 잠깐만요. 입구에 서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해야 하지 않을까
(김중기)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 분들이 여기
(양규혁) 에 와서 의견을 청취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 넣
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위 원 : 제가 대학노조로 들어와 있는 직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기를 깊어
(이문선) 주시니깐 제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대학회계직원 391명중에 구기성회직으로
데있었던 지금 남아있는 그분들이 70명이 채 안돼요. 68, 69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현재 학생지도비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밖에 없고요. 그다
음에 정규직전환을 하면서 청소여사님들 120명 정도 들어오고 무기계약직에
서 사무원으로 들어오고 이번에 시설직에서 들어오고 곧 있으면 무인경비
시스템에서 경비직들도 들어오고 하실 건데 그러면 390명 정도 돼요. 전환
이 됐으면서 이름은 대학회계직으로 바뀌었지만 임금체계나 이런거에 대해
서는 분명히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학교 측에서 학생
지도비를 바로 늘릴 수 없다는 점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교육부에서
예산자체가 승인사항이니깐. 문제는 그런 상황을 저희도 알고는 있으나 우
리가 교육부를 매번 찾아갈 수는 없거든요. 저희도 대학노조 전체적으로 교
육부를 찾아가서 집회도 해보고, 학교 측이나 다른 구성원도 보직자협의회
든 국립대협의회든 총장협의회든 함께 이야기 해주셔서 같이 일하는 구성원
들이 업무에 대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은 있으면 안된다는 점은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가장 힘드신 데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총장
님 공약인데 따뜻한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 원 :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재정위원회니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김중기)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
해서 총장님 ~~이하~~ 보직자들이 ~~교부~~ 모여서 충분히 ~~의견을~~ 소통하고 거기에
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의견이 여기에 올라와서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 감사합니다.

(양규혁)

위 원 : 아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런 절차들이 정형화되거나
(김중기) 확실하게 운영되거나 예산을 짜면서 그런 과정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인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서 그런
의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 그런데 교연비는 교육부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박성일)

위 원 : 교연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대학 내의 차별문제라든지.

(김중기)

재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연비 부분은 교육부 승인이 나면 여기에 반
(박성일) 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 원 : 이번에 새로운 총장님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직원복지라든지 교원복지라든
(김중기) 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거의 반영이 된 것들이 없잖
아요. 언제 그 공약들이 실천이 될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야말로 공약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 원 : 간략하게 한마디 드리면 홍철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위원회 의결 (김용우) 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총장님이든 학무회의든 별도의 공간을 소외된 인 원들과 단체들과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도 학교발전의 좋은 계기 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 원 : 그때는 학생대표분도 꼭 오셔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 재원은 등록금 가지고 (박성수) 쓰는 거거든요. 국고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깐.

위 원 : 전체적인 모든 단체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학교발전에 큰 영향력이 있을거라 (김용우) 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더 이상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양규혁) 주시면 거수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로 해도 되겠죠?

위원들 : 네

위원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성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혁) 10분 전원이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성 1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결정에 따라 안건 중에서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 (박성일) 하여 설명함.

위원장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양규혁)

위원장 : 올해 예산으로 보면 처음 편성 예산에 대해서 거의 20% 가까이 늘어난 거 (양규혁) 네요.

재무과장 : 2550억인데, 보통 한 450억 정도 정부재정지원사업하고 교육부에서 사업비로 (박성일) 확정이 안 되고 중간에 내려오는 것들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전체 규모가 3000억이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 원 : 명시이월 있잖아요? 여기에 이유를 붙였는데 20년까지 계속사업이예요. 앞에 (김중기) 보면 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이게 모든 사업들이 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예요?

재무과장 : 국고시설확충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 (박성일) 다. 그 다음에 조기집행을 위해서 일부 돈을 당겨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계

약을 하게 되면 선금으로 한 20, 30%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 비 같은 경우 국고에서 내려온 경우에는 간단하게 끝나는 리모델링 보수비 말고는 대부분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위 원 :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예산편성이 되는게 아닌건가요?

(김중기)

재무과장 : 네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주면 내진보강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공 (박성일) 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돈들을 교육부에서도 일

찍 발주를 해라 설계라도 해야 발주를 할 수 있거든요.

위 원 : 이를테면 좀 의문이 드는게 19회계연도에서 20회계연도로 넘어오면 20년도 (김중기) 계속사업비만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8년도 사업 중에 19년도로 넘어왔다가 사고이월이라든지 예산집행을 못한 사업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거든요.

재무과장 : 그런 부분들은 결산할 때 조서를 별도로 붙이고 보고를 드립니다. 결산할 때 전년 (박성일) 도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을 결산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원 : 그니까 전제는 2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라고 하면서 뒤에는 절대공 (김중기) 기 부족 이렇게 하니깐 실무적으로 시간이 남았는데 어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 절대공기 부족은 공사를 하면 2020년 2월28일 그러니깐 출납폐쇄기한 3 (박성일) 월20일까지 완료되어야하는데 한 4월말까지 끝나는 경우는 공기 자체가 회계연도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것을 이월을 시켰는데 우리가 이만큼 썼느냐 아니면 못썼는데 아니면 갑자기 사고가 터지면 사고이월처리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시이월에서 사고 이월하는 경우는 대단위 민원 발생건 외에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남는 것은 국고시설비는 교육부에 반납을 하는 정산형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위 원 :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갔을 때 과목조정이 있었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위 (김중기) 에서 내려오는 과목이 조정되면서 시설비나 이쪽으로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추경을 하면서 다 집행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명시이월을 시킨거예요?

재무과장 : 예, 시켰습니다. 그 내역을 결과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성일)

위 원 : 예, 알겠습니다.

(김중기)

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규혁)

위원들 : 네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분들이 동의해주신다면 거수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들 : 네

위원장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
(양규혁) 니다. 열 분의 위원이 찬성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성 10표, 반
대 0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기타사항협의로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서
출석위원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할수 있기에 출석위원중 3인을
대표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9회계연도 제3회 재정위원회시에는 이인재, 김용
우, 박지석 위원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간(間)서명하실 위원 3인을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이원석위원, 김중기위원, 이문선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간서명하실 3명의 대표 위원으로 이원석위원, 김중기위원, 이문선위원이
(양규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제4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
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 사 :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제4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김강욱)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2020. 2. 12.(수)

'0 0 '1 4/15/2020 장 : 양 규 혁 (인)

간 사 : 김 강 욱 (인)

기 록 자 : 김 선 응 (인)